

대진대 과학영재 모집

초·중학생 대상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접수

대진대 과학영재 교육원은 2006년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를 모집한다. 과정별 교육기관은 초·중등부에 각각 기초과정(1년)과 심화과정(1년), 사사과정(1년)이며 과목별 정원은 초등기초반 60명(수학 15명, 과학 30명, 정보 15명), 초등심화반 75명(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각 15명), 초등심화반 각 반별 약간명, 중등심화반 각 반별 약간명.

을 이수한 학생은 당연 지원자에 해당되며 2005년 현재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4~5학년 재학중이거나 수학·과학·정보분야 경시대회 혹은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자로 한정하고 있다.

중등 심화과정 지원자는 대진대 과학영재 교육원 기초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당연 지원할 수 있으며 2005년 현재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이거나 수학·과학·정보분야 경시대회 또는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자로 한정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gifted.daejin.ac.kr)을 보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나의 독후감

파브르를 읽고



김연수 학생명예기자·동남중학교 1년

암리는 어려서부터 자신만의 특별한 보물이 있다. 산속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암리는 산이 좋고 들이 좋아 곤충들을 보며 살아가는 순수한 아이이다. 가난과 함께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암리에게는 자연만이 생애의 빛이고 아름다운 공간일 것이다.

쇠뿔구리가 똥을 떼어내 굴리는 모습과 밤에 찌르르찌르르하고 엉덩이 뒤 콩무늬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공금해 밤늦도록 사흘동안 공금해는 호기심과 영리함이 암리가 중학교 파브르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선생님이 되어서도 학생들에게 과학을 잘 가르치고 생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파브르는 곤충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았다.

파브르의 그 관심과 호기심이 특별한 보물을 간직하며 그의 보물로서 '곤충기'라는 책도 발행하고 과학이야기 책은 80여가지나 됐다. 파브르의 끈질긴 노력과 연구가 그의 생애에 있어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나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나도 그런 특별한 보물을 찾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이 있어야 할까?

암리는 영리하면서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큰 학자가 된 것 같다.

제4회 포천사랑백일장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지부장 이재욱)은 지난 24일 포천반월아트홀 광장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포천사랑백일장을 개최했다.

오성과 한음, 양사언과 이혜조 선생의 고장 포천의 전통적 문예발전과 문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한 이번 백일장은 문학인의 자질 향상 및 참신한 작품을 발굴, 포상에 포천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이날 실시된 백일장의 주제는 '우리동네', '가족', '나의 꿈(희망)'으로, 대회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치러졌다.

한편 백일장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일반부 △문문 ▶차하 백복금(소흘읍 송우리) 어머니 △산문 ▶차상 한금숙(군내면 구읍리) 행복 우리가족 ▶차하 백종만(신음동) 나의 꿈.

■고등부 △문문 ▶장원 이소영(동남고 1년) 추억을 그리며 ▶차상 임병열(동남고 1년) 날개(나의 꿈), 박성민(동남고 2년) 피어오를 날개 ▶차하 강혜지(동남고 1년) 놀이터, 김제민(포천고 1년) 하얀 실 한가닥, 김진식(동남고 1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산문 ▶차상 전명희(포천고 1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최수정(동남고 2년) 꿈을 향한 열차 ▶차하 심미령(동남고 1년) 나다운 나, 김연수(동남고 1년) I wish..., 이삿별(포천중고 1년) 작가 꿈의 이름에 발을 내딛다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는 지난 24일 포천반월아트홀 광장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포천사랑백일장을 개최했다.

■중등부 △문문 ▶장원 심기람(동남중 2년) 우리 동네는요... ▶차상 김담이(동남중 1년) 통일의 길목 포천, 이민경(동남중 1년) 포천이여 영원하라 ▶차하 양민균(포천중 1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류민기(경북중 2년) 우리 가족은 한 채의 튼튼한 집, 유미(포천중 2년) 내가 꿈꾸는 세상 ▶장원 김민지(포천여중 1년) 자연과 포천, 이정은(포천여중 1년) 오순도순 우리집, 이민재(동남중 1년) 우리형, 서윤정(포천여중 2년) 내가 사랑하는 세상, 왕승찬(포천중 1년) 뿌리 깊은 꽃, 최은혜(동남중 2년) 우리 엄마는요..., 이상윤(포천중 1년) 내 마음의 작은 그림 △산문 ▶장원 임향(포천여중 1년) 아~그리운 그날... ▶차상 유보경(내촌중 2년) 하나와 하나가 만나

■초등부 △문문 ▶장원 김효기(영북초 5년) 우리 가족 꽃 ▶차상 이은비(도평초 4년) 자전거 타고 동네 한바퀴, 이 산(신북초 1년) 비비유 치킨 ▶차하 이현주(송우초 6년) 우리 동네 닭을래, 허원준(송우초 2년) 공금해요, 최민희(영북초 5년) 아빠 △산문 ▶장원 엄지혜(포천초 6년) 난 구수한 똥장 밥새가 좋다 ▶차상 장효진(도평초 6년) 가족 아닌 가족, 송아, 조민영(이동초 6년) 가족 ▶차하 최정원(영북초 6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혜진(추산초 3년) 우리 가족. * 입선작은 본지인터넷 게재.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아빠 어렸을 적에(40)

과자 한 박스를 줍다

"와! 고소미다!"
우리들의 입은 크게 벌어졌습
니다.
우리들은 우선 한 봉지씩 나누
어 들고 봉지를 찢어 고소미를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의 입에서 고
소미는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
니다.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입에서 채 씹기도 전에 한 입
찢어져라 넣은 한 아이가 발음이
터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긴 뭐가 맛있어 이놈들
아!"
우리들의 목 뒤에서 바리톤 같
은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입에 과자를 한 입씩
가득 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 뒤에는 군용 덤프터
이서 있었고 군인 두 명이 내려
서 우리들을 압도하며 꾸짖었습
니다.
"야, 이놈들, 니덜 뭐하는 거
야! 과자를 주었으면 주인을 찾
아 주어야 할 것 아니야! 모두
이리 내놔!"
군인들 들은 우리들이 뜯어 먹

던 봉지마저 빼앗아 박스에 담고
트럭에 올려놨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트럭의 옆 문
쪽에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네?"
아이들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
리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조
수석에 탄 군인이 우리들이 뜯어
먹던 과자 봉지와 서너 봉지를
차장 밖으로 내던지며 출발하려
하였습니다.
순간 내가 군용 트럭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공책과 연필
을 꺼내 연필에 침을 발라 차장
넙터를 적었습니다.
"너 이놈 뭐하는 거야!"
조수석에 탔던 군인이 내렸습
니다.
"으음, 아저씨 이름 강 아무개
죠, 계급이 병장이시네. 아저씨
부대 공병대대 일대대죠? 난 다
알아요, 내가 아저씨를 헌병대에
다 이틀 가세요, 이제 갈래면 가
요! 우리 옆집에 일대대 오상사
가 사는데 다 이틀 거예요."
나는 군인의 이름표를 보며 침
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안절부절 못
하는 눈치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과자
반을 줄게!"
문전석에 앉았던 상병이 내려
와 말했습니다.
"어, 이 아저씨 이름은 권 아무
개 상병이네? 우리 과자 필요 없
어요, 뭐, 어차피 우리를 것도 아
닌데요 뭐?"
나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병장이 통명스럽게 말하였습
니다.
"야 니덜 다가져라!"
"뭐 우리들이 다가져요, 우리가
주운 것이니까 원래 우리 건
데..."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과자 박스
를 건네받았습니다.
"야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병장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도 우리에게 미
안하다고 해요!"
나는 병장을 노려보듯 말하였
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병장은 애써 호들갑을 떨며 말

김순진의 연재 수필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아무에
게도 말하지 않게요, 자 아저씨
들두 과자 잡주세요."
나는 그 군인들에게 과자 네
봉지를 건넸습니다.
그 군인들은 우리에게 과자를
통째로 빼앗으려다 망신을 당하
고 오히려 과자를 얻어 가지고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야호! 까르르르!"
우리들은 달아나는 군용 트럭
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
로 웃었습니다.
우리들은 백 개들이 고소미 과
자 한 박스를 열대여섯 봉지씩
나누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감자 섞인 보
리밥이 싫다며 밥을 물리치고 과
자로 배를 채웠습니다.
(계속)

청성공원 청소년 푸른쉼터 지정

푸른쉼터 선포 및 청소년 축제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
구협의회(회장 송순석)는 지난 24
일 청성문화체육공원에서 푸른
터 선포식 및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이 폭력과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과 청소년들의 숨겨져 있는 재능과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
시지구협의회가 주관하고 의정부
검찰청, 범방의정부지역협의회, 포
천시,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청이 후
원했다.

관내 청소년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푸른쉼터
선포식, 2부 청소년 문화축제, 3부
연예인 축하공연 및 시상으로 진행
됐다. 관내 6개 고등학교, 15개 중
학교, 시민,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가 지난 24일 청성문화체육공원에서 푸른쉼터 선포식 및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문화행사에 흥겨워하고 있다.

1부 푸른쉼터 선포식에는 푸른쉼터
선포, 자원봉사단 결의문 낭독, 푸
른쉼터 제막, 중·고등학교 학생
37명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됐다.
2부 청소년 문화축제는 관내학생
동아리 팀 축하공연, 각급 학교 재
능 있는 학생추천, 댄스·가요경연
대회, 즉석 장기자랑 등 청소년의
 끼를 발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부에서는 박보선, 춤쟁이, 조수
경 등 가수 및 댄스팀이 출연해 축

하공연 및 2부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해 시상했다.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길 바라고, 관
련기관·자원봉사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및 청소년 선도보호의 사회적
환경조성, 올바른 청소년 놀이문화
형성 등 사회적인 공감대가 마련돼
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국민연금 포천사무소 개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으로 제도시행 18년째를 맞으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 1,690만명, 연금수령자 150만명, 기금 150조원이 적립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는 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바 가입자들의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천사무소를 2005. 9. 6자로 부득이 폐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으며, 아울러 2005. 9. 12자로 포천사무소(포천시 신읍동 72-7 문암빌딩 2층-포천시청옆)가 개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성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더욱더 친절할 업무서비스로 신뢰받는 국민연금 의정부지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